

위험사회 극복을 위한 『성찰적 근대화』의 재해석

조 광 래*

〈요 약〉

한국사회는 위험과 불신이라는 측면에서 복합 위험사회다 농경사회의 전근대적, 산업사회의 근대적, 정보화사회의 후근대적 위험과 재난이 현재라는 시간대에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부를 획득하고자 하는 끝없는 과학기술의 발달은 동시에 위험사회를 도래한다는 울리히 벡의 지적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 20세기 후반에 새로운 근대화의 진전에 따른 위험사회의 도래를 지적하고 그 위험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성찰적 근대화(reflexive modernization)”를 언급한 ‘울리히 벡’의 이론을 새롭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성찰적 근대화는 인간중심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잘못된 과거를 반추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설계해 주는 방향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찰적 근대화를 주장한 울리히 벡의 재해석을 통해 위험사회 극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의 새로운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안전(security & safety)을 전공하고 연구하는 우리는 정부의 안전정책과 국민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주제어 : 위험사회, 성찰적 근대화, 시큐리티, 울리히 벡, 위험극복

* 중부대학교 경호보안학과 교수

목 차

- | |
|------------------------------------------------------|
| I. 서 론
II. 이론적 논의
III. 성찰적 근대화의 재해석
IV. 결 론 |
|------------------------------------------------------|

I. 서 론

20세기 산업화 사회는 과거 수 백년 간에 걸친 과학과 산업의 발전을 한꺼번에 넘어서는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진 시대이며 봉건사회의 구조를 해체하면서 생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사회 역시 새로운 근대화에 의해 해체되고 있으며 이제 소위 4차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정보화 사회로서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근대성이 형성되고 있는 중이다. 동시에 대한민국 사회는 해방 이후 주류를 이루었던 우파적 사회에서 좌파적 성향을 가진 사회민주주의적 성격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 전반에 걸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듯 과거를 해체하면서 등장하는 새로운 사회구조적 변혁의 시대에 나타나는 특징 중의 하나는 새롭게 나타나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도록 막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던 주류 사회의 특징을 완전히 잃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새로운 변혁의 시대에서 과거와의 단절을 경험하고 새로운 해방을 맞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해방의 시대가 가져오는 미래를 예측하기는 점점 어렵게 되고 있다.

일찍이 산업사회를 구축한 유럽에서는 산업사회를 넘어 정보화 사회로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급격한 기술발전이 가져오는 새로운 사회현상, 즉, 위험(risk)에 대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새롭게 맞이하는 기술개발에 따른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주는 사회는 과거와의 단

절을 의미하며 이는 산업사회의 윤곽에서 해방되는 것이며 기술개발 과정에서 필히 수반되는 과거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위험이 대두되는 위험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위험사회의 주체이면서 또한 대상이다.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위험의 대두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막연하게 느꼈던 원자력 방사능으로 인한 위험이 일본에서 현실화 되면서 위험사회가 본격적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등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대량 인명피해 사건이나 경험해보지 못했던 현상이 본격화 되면서 위험사회를 실감하고 있다. 초연결(hyperconnectivity)과 초지능(superintelligence)을 특징으로 하는 4차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지능정보기술 발달로 우리에게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위험을 가져다 줄 것이다.

위험에 대한 인식은 쉽지 않다.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인식이 위험이기 때문이다. 인식이 되지 않은 위험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뿐만 아니라 실행에 옮기고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다가올 미래 상황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된다. 그 결과를 우리는 실감하고 있으며 경주.포항지역의 지진, 세월호 사건 등은 이러한 위험사회에 대비하지 않은 확실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그리고 시급하게 그러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내던져진 새로운 위험사회를 인식해야 하고, 상상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러한 위험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고 위험사회에 종속되지 않고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발상과 이론이 필요하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발상과 이론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20세기 후반 많은 유럽의 사회학자들이 지적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책으로 그리고 이론으로 지적되어지고 경고된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였고 그것을 실제 우리의 삶 속으로 그리고 행동 속으로 실천하기 못하였다. 특히 사회민주주의 성향을 가진 새로운 정부의 등장은 시큐리티 분야에서도 새로운 시각으로 대처해야 함을 기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 20세기 후반에 새로운 근대화의 진전에 따른 위험사회의 도래를 지적하고 그 위험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성찰적 근대화(reflexive modernization)”

를 언급한 ‘올리히 벡’의 이론을 새롭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대구지하철 폭발사건 등 대규모 인명사고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전 국민을 비탄과 슬픔에 잠기게 한 세월호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는 위험을 극복하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면서 연구는 시작되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의 새로운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안전(security & safety)을 전공하고 연구하는 우리는 정부의 안전정책과 국민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논문으로 이어졌다. 여기서 위험사회 극복을 위해 올리히 벡이 지적한 성찰적 근대화의 본 의미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하였으며 이는 지금 우리가 직면한 환경에도 훌륭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980년대 산업사회를 막 벗어나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는 시점(1986)에서 올리히 벡이 지적하고 있는 위험사회 극복 대안이 30년이 지나 이제 4차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동시에 벡의 이론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도 없고, 동의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의 지적에는 우리가 간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특히 정치적으로 사회민주주의가 성숙한 유럽 정치체제에서의 안전과 위험에 대한 지적과 연구는 이제 막 사회민주주의를 시작하고 있는 우리나라 환경에서의 위험사회 전반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새로운 발전방향에 대한 모색하는데 있어서 분명 지향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논문의 성격상 올리히 벡에 대한 문헌적 추적과 연구밖에 할 수 없었으므로 논문의 한계는 명백하다. 하지만 우리가 합리성에 근거한 경제적 부만을 추구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앞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하지만 예측이 어려운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위험을 지적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앞으로 전진 또 전진만을 주장하는 사회 속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그리고 그 결과가 엄청나게 참혹할 수도 있는 위험 대두가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전공한 연구자로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더 큰 재난 혹은 위기의 발생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또한 명확하기 때문이다.

II. 이론적 논의

서론에서 언급하였지만 위험은 예측이고 미래이며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다가오고 있는 재난과 발생한 사건 사고와 관련이 있다. 그런데 위험은 또한 이미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현재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서 실존적이기도 하다. 우리가 먹는 인스턴트 음식의 포장지를 보라. 알지 못하는 인공합성물-화학물질이 영어로 (실제는 영어를 한글로 표현한 한글이다) 잔뜩 적혀있다. 무슨 성분인지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지만 식품 의약품 안전 기준을 통과하였으므로 우리 아이를 포함한 우리 가족에게 안전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약간은 의심하면서 주저하지 않고 먹는다. 이러한 경우는 음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버스를 탈 때에도 내가 타는 버스는 규정대로 안전점검을 받았으며 버스 기사는 규정대로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운전대를 잡는다고 믿는다. 하지만 버스 사고가 나면 나중에 사고의 원인이 정비불량 혹은 기준치 미달의 불량부품을 사용했다거나 기사가 규정대로라면 충분한 휴식이었어야 함에도 실제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 발표를 볼 수 있다. 혹은 인간이 예측한 범위를 벗어난 천재지변의 결과로 불가항력이었다는 결과도 나온다.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건이나 세월호 사건의 결과도 이에 다름이 아니다.

고도로 분업화 된 현대사회는 점점 복잡해지고 이 복잡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대량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위험사건의 경우 그 복잡성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원인이 되며, 위험사건 발생 과정에 포함되는 모든 것이 원인과 동시에 결과인 것이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위험발생의 과정상에 있는 우리는, 그리고 모든 과정은 원인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다. 결과를 유발하는 모든 과정이 한데 얽히고 뭉치고 서로가 서로의 원인과 과정에 개입하면서 완전히 용해되어 어떠한 원인에 따라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변화한다. 현대사회의 복잡성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현대사회의 복잡성으로 인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자각이 점점 약해지고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논리 속에서 체계적으로 위험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현대사회는 점점 위험사회로 이행된다고 올리히 벡은 주장하였다(올리히 벡, 2006).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의 진입이 시작된 시점에서의 벡의 지적은 훨씬 더 복잡해지고 정교해지고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기술발전의 시대인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위험은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위험사회는 더욱 성숙해질 것이므로 오히려 백의 위험사회 진단은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오히려 백의 위험사회를 요약 정리해보았다.(오히려 백, chap. 1)

1. 오히려 백의 위험사회이론에 관한 논의

1) 부의 분배와 위험분배의 개념과 특징

백에 의하면 선진화된 근대성에서는 부의 사회적 생산에 위험의 사회적 생산이 체계적으로 수반된다. 따라서 결핍사회(a society of scarcity)의 분배의 문제 및 갈등은 기술·과학적으로 생산된 위험의 생산, 정의, 분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및 갈등과 중첩된다. 이러한 현상은 작금의 한국의 위험사회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처럼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국민의 복지가 향상된 국가에서는 지금 “뺑”을 위한 투쟁은 더 이상 긴박성을 상실하였다. 오히려 경제성장의 이면에서 발생하는 어두운 면이 부의 성장과 함께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콜롬부스 시대에서 ‘위협’이라는 단어는 용맹과 모험을 의미하였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자기파멸이라는 위협을 뜻하지는 않았다.

19세기 초에 영국 런던의 템즈강에 빠진 선원들은 익사하는 것이 아니라 런던 하수구의 악취와 독가스를 마셔서 질식사 했다고 한다. 반면 오늘날의 문명에 의한 위험들은 분명히 인지되지 않으며 복잡한 과학·기술 뒤에 숨어서 전문가들조차 그 원인을 알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결국 오늘날의 위험은 산업적 과잉생산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중세시대의 위험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근대적 원인으로 인해 생성된 지구적, 근대적 원인으로 인한 것이다. 이것들은 근대화가 낳은 위험이다. 이것들은 산업화가 낳은 대량생산물이며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어 체계적으로 강화되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내포된 위험은 이제 그 위험을 산정하는 지금까지의 방법에 의존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전 세계 인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의 이유이건, 전쟁의 이유이건 새로운 종류의 기술발전과 함께 성장하고 우리 앞에 대두되는 계산 불가능한 위험들은 글로벌화에 따라 전 지구상에 만연되고 있다. 위험사회에서의 위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1) 후기 근대성 내에서 생산되는 위험은 부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 위험은 체계적이고 거의 되돌릴 수 없는 해를 끼치지만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며 과장될 수 있고, 각색되거나 축소될 수 있으므로 이 위험은 사회적으로 임의로 정의되고 구성될 가능성을 내포 한다
- (2) 사회적 위험집단이 생성되어 어느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위험의 분배 및 성장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산업사회의 계급에 의한 불평등과는 다르다.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의 확산과 상업화는 자본주의 발전논리와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발전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 올린다. 위험의 정의에는 승자도 있고 패자도 있다. 승자의 관점에서는 근대화로 인한 거대한 위험은 그 또한 사업거리이다.
- (4) 사람들은 부를 소유할 수 있지만 위험에 의해서는 단지 영향받을 수 있을 뿐이다. 지식은 새로운 정치적 중요성을 획득하고 위험사회의 정치적 잠재력은 위험에 관한 지식의 기원과 확산을 다루는 사회학적 이론으로 다듬어지고 분석되어야만 한다.
- (5) 사회적으로 인정된 위험은 특이한 정치적 폭발력을 갖는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충분히 경험하였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 지금까지 위험이라는 아주 비정치적인 것이 정치적으로 된다. 우리가 경험한 여러 사건 사고들을 보라. 광우병 사건 등 비정치적 사건 사고가 엄청난 정치적 결과를 초래한 것을 충분히 볼 수 있다.

2) 근대화 위험의 지식 의존성

위험은 부(富)와 구별된다. 부(富)는 계급지위를 구성하며 희소성을 지닌 재화를 획득하기 위한 욕구와 관련이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위험은 위험지위를 구성하며 근대화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많을수록 바람직하지 않은 특징을 가진다. 위험은 제거되거나 부정되고 재해석되어야 한다. 부(富)에서는 긍정적인 획득·확산의 논리가 있으며 위험에서는 회피, 부정, 재해석, 처분의 부정적 논리가 있는 것과 대비된다.

우리가 위험이라고 부르는 여러 요소들은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인지할 수 없으며 일부 쉽게 구분되는 위험이라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그 위험을 판단하고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격 있는 전문가의 판정이 필요하다. 여기에 정부의 인가 혹은 허가 등의 법과 제도가 개입된다. 정보통신, 바이오 생명공학 등 새로운 기술에 부수적으로 수

반되는 새로운 위협은 인간의 직접적인 지각능력을 완전히 벗어난다. 희생자들이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위협들에 대해 더 큰 주의가 요구되어 진다.

위험논의에서 명백한 것은 과학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의 균열과 격차이다. 양자는 서로의 능력범위를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면서 괴리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과학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은 실제 분리되어 대립되기도 하고 동시에 서로 결합되며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한다. 위험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인식은 과학적 논쟁에 의존하고 있으며 신기술에 부수하는 위험에 관한 과학적 관심은 사실상 사회적 기대와 가치평가에 의존한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합리성이 없는 과학적 합리성은 공허하며, 과학적 합리성이 없는 사회적 합리성은 맹목적이다. 우리는 원자력발전의 확대와 축소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에 대해 확실히 확인할 수 있다.

3) 위험인식과 정치·경제 - 세계사회의 유토피아

당장의 정치 경제적 필요성으로 인해 저개발국가에서는 인식 불가능한 위협을 무시하는 근거를 찾는다. 결국 위험과 위해가 커지고 만개하며 번성하는 문화적-정치적 토양이 된다. 정치적 이유 혹은 경제적 이유로 인해 부의 생산논리가 언제나 승리하며 바로 그 때문에 위험사회가 궁극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된다.

저개발국가나 산업화된 부유한 선진국가 모두 경제성장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규정된 오염배출량을 확대하고 식료품에 함유된 유해물질 조사를 막기 위해 실업의 위협이 강조된다. 동시에 위험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괜한 걱정으로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사람, 혹은 오히려 위험의 생산자라는 오해를 받게 된다. 그들이 제시하는 위해는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오히려 그들의 실증은 과장된 것이라고 취급된다. 과학과 연구에 대한 신뢰를 호소하면서 과학적 합리성이 위험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과학에 대한 비판과 미래에 대한 불안의 표현은 비합리주의로 낙인찍힌다. 여러 분야에서 위험이 허용되고 있다. 자동차 사고로 연간 수 천 명이 사망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사실에 익숙해져 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좋은것을 획득하는데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그보다는 최악을 예방하는데 관심을 갖는다. 개혁사회의 꿈은 모든 사람이 파이를 나누어 먹고 싶어 하고 또 그래야만 한다는 것이다. 위험사회의 유토피아는 모든 사람이 위험에서 벗어나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2. 위험사회와 지식의 정치

한때 부의 원천으로서 각광받던 것들(원자력, 화학, 유전자변형 등)이 예측할 수 없는 위난의 원천으로 변형되고 있다. 이미 우리 옆에서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하지만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과소평가 및 은폐방식은 그 위험이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낼수록 더욱 더 많은 장애에 부딪히게 된다. 근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과학자와 전문가들이 과학의 영역에서 그리고 정치영역에서 사슬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위험의 징황증거들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을 부인하느라고 노력하는 피고인의 위치에 놓여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문명이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위험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비실체감으로 인해 과학적 사고로만 인식되며 일차적인 경험으로 연결될 수 없다. 위험 인식에 지식이 필요하며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 인해 인명의 대량살상과 대규모 파괴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와 상상력이 부족하게 되고 윤리적 범주가 모자라게 된다.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 그리고 없는 것이 우리를 위협한다.

1) 위험의 빈곤화

21세기 세계적인 빈곤의 양극화를 감안하더라도 대부분 대량생산과 풍요사회에서 살아간다. 고도로 풍요롭고 복잡한 사회에서 위험이 발생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자기파멸을 뜻할 것이며 이 점은 예상된 위험을 구체적인 위험으로 실제로 변형시키는 논거이다. 이런 의미에서 위험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산업사회에서와 같이 부의분배논리나 사회보장 확장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지배적인 패러다임적 변화와 재해석을 요구한다.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증대된다고 해서 기술에 대한 적대감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위험의 잠재성의 감소와 근대성 위험에 관한 자각의 증대는 최근 들어 확산되고 있으며 정치적 요인의 최전선에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다음의 핵심적 발전에 그 이유가 있다.

첫째, 위험의 과학화가 더욱 진척되고 있다. 둘째, 위험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최근 환경보호나 문명 발전이 수반하는 위험감소나 제거를 위해 지불하고 있는 비용을 생각하면 너무도 분명하다. 위험은 “밑빠진 독과 같은 수요”를 갖고 있어서 충족될

수 없으며 무한하다. 위험 자체가 사람들의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연장되기도 하며 심지어 조작되기도 한다. 점차 위험은 온갖 모습으로 위장한 채 실제로 나타날 것이며 이미 나타나고 있다. 산업사회는 자신이 생산한 위해들로 자신을 육성하고 이제 까지 알려져 온 근대화의 기초를 의문시하는 사회적 위험지위와 정치적 잠재력을 만들어 낸다.

2) 합리성들의 경쟁

과학은 위험을 규정하고 사람들은 위험을 인식한다. 공적인 위험 인식을 벗어나는 비합리성은 기술엘리트들의 기준에서는 대다수 대중들이 아직 전문가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 완전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위험의 기술적 관리가능성과 위험이 없다는 데에 대한 전문가의 관점과 평가를 받아들이고 있다. 만일 기술자들이 알고 있는 정도만 알게 된다면 대중은 마음이 편해질 것이다. 위험의 과학적 정의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을 비합리적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 위험 전문가들은 위험에 관해 사람들이 “틀린, 비합리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는 가정에서부터 잘못을 저지른다. 위험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과학적 견해를 하나의 교리로 승격시키고 사람들의 ‘과학적 비합리성’을 판정하는 심판관 역할을 한다.

산업화 과정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중에는 이와 연관된 위험이 언제나 무시되었으며 지금도 무시되고 있다. 기술-과학적 관심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은 생산성을 위한 유용성이며 그와 관련된 위험들은 단지 사후적으로 고려되거나 심지어는 전혀 고려되지 않기도 한다. 가슴기 소독제로 인한 피해의 사례를 보라. 과학자들이 ‘잠재적인 부수효과’와 ‘입증되지 않은 연관관계’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 어린 자녀들의 ‘심각한 폐질환’, 심지어는 ‘사망’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입증될 때까지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

순수과학의 결백함을 빙자하여 과학적 방법론에 근거를 두면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수준높은 인과증명의 기술’을 옹호하며 이로써 시민의 저항을 막고 인과연계를 증명할 능력이 부족한 초기단계에 저항을 완전하게 차단시켜버린다. 과학자들은 산업계의 비용을 줄여주고 정치인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위험 기준을 확대하여 모든 생명을 위태롭게 한 것이라고까지 주장할 수 있다.

3. 율리히 벡의 위험사회 이론을 통 해본 사례연구

시큐리티 측면에서 율리히 벡의 위험사회의 사례에 대한 연구는 선행연구가 부족하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였으나 위험사회이론 측면에서 살펴보지 못한 일부 사건 사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사회가 발전하고 심화될수록 위험의 발생가능성은 증대된다. 복잡하게 얽혀서 원인과 결과를 추측할 수 없을 정도이지만 위험가능성은 정치, 경제 등 온갖 분야의 이해관계를 통해 위험을 실제적이며 발행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만든다. 위험사회의 정치적 주체는 정도의 차는 있지만 대규모 위해에 의해 희생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다. 모든 사람들에 의한 압도적인 불안은 쉽게 억제될 수 없고 이는 누구의 책임도 아니며 모든 사람의 책임이다. 위험사회의 기초이면서도 원동력이 되는 규범은 안전(safety & security)이다.

우선 세월호 사건에 대해 살펴보자. 모든 대형사건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 정치가도, 위험 전문가도, 과학자도- 사건발생을 미리 계산하여 예측하지 못한다. 이러한 계산(예측) 불가능한 위험은 사실은 모든 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잔여 위험이 된다. 세월호 사건도 이 범주에 든다고 할 수 있다. 과학적 관리의 범주를 벗어났으며 법과제도의 사이를 피해가면서 발생한 위험은 그 위험 관리의 어려움을 말해준다. 전 세계적인 글로벌화 사회에서는 파국을 가져오는 위험은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잠재력이 중심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이 발생 가능한 위험을 희생자들은 느낄 수 없다. 그 위험을 판단하고 측정할 수 있는 전문가들조차 위험의 발생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법과 제도로 개입하고 있는 정부는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일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위험은 이룰 것이다 라는 막연한 희망에 근거한 예측이 아니라 보다 직접적인 위험대비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반인들(국민 모두)은 스스로 근대화의 위험에 관한 작은 규모의 사적인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일반인들에게 위험은 위험이 아니라 이파하고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르는 자녀들이다. 이들은 자녀들을 위해 싸운다. 모든 사람이 각자 나름대로 작은 책임을 안고 있는 고도로 전문화된 체계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근대화의 위험은 이제 바로 곁에서 응원하면서 사적인 전문지식을 가진 옹호자를 갖게 된다.

최근 우리의 최대 관심사인 미세먼지와 관련된 사례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근대화 위험의 특정한 분배양식을 살펴보면 위험의 지구화 경향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먹이사슬에 따라 지상의 모든 사람을 다른 모든 사람에게 연결시킨다. 먹이사슬은 국경선 아래로 숨어들어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든다. 대기 중의 오염물질은 산성비로 인해 문화유산만을 갇아 먹는 것이 아니라 세관을 넘나들며 장벽을 해체한다.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와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생각해보라. 바다를 건너고 국경선을 뛰어 넘어 세관과 국경을 무력화한다. 관세를 지불하지 않은 오염물질로 인해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며 끊임없이 올려대는 미세먼지 정보에 피곤해한다.

또 다른 사례로는 메르스 사태를 들 수 있다. 2015년 5월 20일 평택성모병원에서 첫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이후 186명의 확진자와 3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첫 발병 이후 하루 평균 3~4명에 불과하던 확진자가 6월 6일과 7일 각각 22명, 23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함으로 써 국가재난위기가 되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분석은 다양하나 대체로 정부의 정보 미공개, 재난관리 컨트롤타워의 부재, 병원의 대응체제 미흡, 메르스 확산에 대한 정부의 책임 전가와 비난회피 행태, 이에 따른 국민의 불신 확산 등이 지적되어지고 있다(권혁빈, 2017)

과학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그 결과가 성공적이라고 여기며 점차 과학기술의 발전의 위험은 그 속도를 가속하게 된다. 과학적 문명은 과학 그 스스로가 드러내고 폭로하는 위험의 잠재력과 발전전망을 통해서만 극복되어 질수 있는 불안의 정도를 드러낸다. 과학은 더욱더 필수적인 것이 되지만 그와 동시에 사회적으로 구속된 진리의 정의는 더욱더 충족시키지 못한다.

한편 과학이 더욱 분화됨에 따라 조건적이고 불확실하고 고립된 세부결과들이 넘쳐나게 되어 결국 조사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학적 세분화된 지식은 수학적 실험물이나 통계적으로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과학화가 진전되면서 체계적으로 생산된 불확실성은 외적 관계들로 확산되며, 정치계와 경영계와 공공영역 속에 있는 과학적 결과들의 목표집단들과 적용대상들을 거꾸로 지식정의의 사회적 과정 속의 능동적 공동생산자로 만든다. 이러한 분석은 메르스 문제점 분석에서처럼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과학기술 의존성이 아니라 성찰적 과학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성찰적 과학회는 과학적 결과의 생산 및 응용과정에서 영향력을 획득하고 발전을

지속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것은 과학화를 통해 과학에서 사회적 실천을 해방시킬 기회를 안고 있다. 산업사회를 지나 정보화사회에 접어든 현대에서 우리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진보가 우리 생태계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악영향과 위험을 망각하면서 진보가 가져다주는 역동적인 생활과 환경의 변화에 매몰되어 우리가 바라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으며 어느 정도 강제적인 방식으로 제도와 양식을 지배하면서 위험사회로 계속 나아간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사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위험하게 되었다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우리의 평균수명은 훨씬 늘었으며 과학 기술의 발전은 분명 우리의 삶의 질을 산업화 이전의 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여주었다. 결국 위험사회란 시민들 모두가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관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향의 근대화가 성찰적 근대화이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그리고 정보화 사회로의 발전이 근대화라면 성찰적 근대화는 생태적 근대화이다. 산업사회에서 그리고 정보화사회에서 발생한 제반 문제에 대해 시민 모두가 대응하는 근대화라고 할 수 있다.

Ⅲ. 성찰적 근대화의 재해석을 통한 위험사회의 극복

1. 위험사회와 성찰적 근대화

과거에는 우리가 외적으로 야기된 전쟁, 자연재해, 기아, 질병 등의 위협들에 관심을 가졌다면 오늘날의 위험은 역사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새로운 내적인 결정에서 나타난다. 과학기술은 우리에게 위험을 가져다주는 원인들 중의 하나이며 위험을 정의하는 그 자체이자 그 해결책의 원천이다.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위험의 결과는 매우 치명적이다. 성수대교의 붕괴에서, 삼풍백화점 붕괴에서,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에서 그리고 세월호 사건에서, 일본의 핵발전소 사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기술·과학적 발전의 모순을 발견하게 된다. 물론 여기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건 사고뿐만 아니라 전쟁, 테러, 자연재해, 질병 등이 포함된다. 이 관점은 다음의 명제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전통의 근대화와 산업사회 이후의 성찰적 근대화 간의 구분에 상응하여 과학

적 실천과 공공영역의 관계 내에서 일차적 과학화와 성찰적 과학화라는 두 가지 위상을 구분할 수 있다. 과학은 문제의 해결책의 원천으로서 뿐만 아니라 문제의 원인으로서도 목표물이 된다. 과학의 결과로 인해 인류사회의 번영과 발전을 가져다주는 성공을 거둠에 따라 과학기술의 발전의 위험은 오히려 그 속도를 가속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매우 역설적이지만 과학적으로 세분화되고 전문적으로 관리되는 세계 속에서 과학이 확장될 수 있는 미래의 전망과 가능성도 과학의 비판에 연계되었다.

과학적 문명은 그 기초와 관련하여 자신이 폭로하는 위험의 잠재력과 발전전망을 통해서만 넘어설 수 있는 불안의 정도를 드러낸다. 이런 식으로 과학의 탈신비화 과정이 시작되며, 그 과정에서 과학과 실천과 공공영역의 구조는 근본적으로 변혁을 겪게 된다.

둘째, 그 결과 과학적 지식의 탈독점화에 대한 중대한 요구가 나타난다. 과학은 더욱더 필수적인 것이 되지만 그와 동시에 사회적으로 구속된 진리의 정의는 더욱더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같은 기능상실은 우연이 아니며 그것은 위험사회의 조건 아래서 기술-과학적 발전의 성찰성이 나은 산물이다.

한편 과학이 더욱 분화됨에 따라 조건적이고 불확실하고 고립된 세부결과들이 넘쳐나게 되어 결국 조사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학적 세분화된 지식은 수학적 실험물이나 통계적으로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과학화가 진전되면서 체계적으로 생산된 불확실성은 외적 관계들로 확산되며, 정치계와 경영계와 공공영역 속에 있는 과학적 결과들의 목표집단들과 적용대상들을 거꾸로 지식정의의 사회적 과정 속의 능동적 공동생산자로 만든다.

성찰적 과학화는 과학적 결과의 생산 및 응용과정에서 영향력을 획득하고 발전을 지속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것은 과학화를 통해 과학에서 사회적 실천을 해방시킬 기회를 안고 있다.

셋째, 과학적 지식주장의 승리에 반대하여 생겨나는 새로운 불가변성의 금기들은 과학적 연구의 독립을 위한 시금석이 되고 있다. 과학화가 더욱 진전되고 위험상황과 갈등에 대한 공적 영역의 의식이 더욱 명확해질수록 행동을 위한 압력은 더욱 커지고 기술-과학사회가 과학적으로 산출된 ‘금기사회’로 변형될 우려는 높아진다. 과학은 더 이상 금기의 파괴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과학은 금기의 구성자라는 정반대의 역할을 채택해야만 한다. 따라서 과학의 사회적 기능은 행동기회의 개방과 폐쇄 사이에서 동요한다. 그리고 이렇듯 모순적인 외적 기대는 전문가 내부의

갈등과 분할을 크게 부추긴다.

넷째, 과학적 합리성의 기초들조차 변화에 대한 일반화된 요구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과학적 합리성이 스스로 부과한 금기들을 가시적이고 의문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찰적 과학화이다.

여기에서 성찰적 근대화에 대한 재해석의 필요성이 더해진다. 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의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사회의 변화는 그 종착점을 가늠하기가 어렵다. 산업사회에서의 기술발달에 따른 위험사회의 도래와는 전혀 다른 위험사회가 우리 앞에 전개될 것이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성찰적 근대화를 재해석하여 일부분이나마 미래의 위험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성찰적 근대화의 재해석

1) 반성과 성찰성

우리가 재해석하고자 하는 성찰적 근대화의 기본 명제는 명확하다. 사회가 근대화 될수록 근대화의 주체(행위자)는 스스로의 존재가 가지는 사회적 조건들에 대해 더 많이 반성하고 그리하여 그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기술발전론자들-근대화를 주장하는-과 그에 대립하는 탈근대화론자들 사이에서 제3의 길인 성찰적 근대화에 의해 산업사회에 따른 위험사회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명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성찰적 근대화를 재해석하는데 있어서 산업사회에서 보다 명확하게 성찰적 근대화의 개념을 재해석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근대화의 명제는 산업사회 시대에서 근대성과 근대화에 대한 성찰성이라는 것이 근대화에 대한 반성, 근대성의 자기비판화 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이 가지고 올 급진적 변화는 산업사회의 변화를 뛰어 넘는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속도의 연산을 하는 슈퍼 컴퓨터, 모든 사물을 하나론 연결하는 사물인터넷(IoT), 행위의 주체가 인간이 아닌 로봇,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등으로 인한 사회의 변화는 기존 사회를 더욱 급속하게 해체, 소진, 변화시킬 것이고 그로인한 사회는 더욱 위협을 받는 위험사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지식과 의식을 넘어서, 이들 기술발전이 가지고 올 위험사회에 대한 반성이 없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이 모든 행위의 주체인 우리(혹은 제도를 포함하는 모든 것)는 의식적으로 사회와 정치를 재창조해 내야 한다. 단순히 기존의 기술발전예 의한 사회변화가 가지고 온 위험사회에 대해 더 많은 반성, 더 많은 위험전문가의 등장, 더 많은 자기인식과 자아비판 등을 통한다면 벗어날 수 있다는 근대성에 의한 성찰성을 뛰어 넘어야 한다. 미래에 대한 무비판적이고 근거가 희박한 낙관론에서 벗어나 전 지구적 생태 위험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는 패러다임적 변화의식을 가지고 경제성장적, 기술발전적 변화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변화가 가져올 미래의 위험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포함하는 성찰적 근대화에 대해 우리 안전전문가들-위험전문가이기도 하다-의 역할이 강조되어지고 있다.

2) 위험사회의 극복

우리사회는 기본적으로 진보에 대한 낙관론을 가지고 있다. 경제성장, 기술발전 등이 가지고 올 미래에 대한 위험까지 고려하더라도 낙관론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우리 위험전문가(시큐리티전문가)들도 포함된다. 재화, 즉 부의 분배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투쟁해 왔으며 지금도 투쟁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그 동안의 부의 분배투쟁에서 위험사회 대두라는 새로운 현실과 맞닥뜨리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이 가지고 올 새로운 위험사회는 더욱 뚜렷하게 대두될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위험사회는 본질적으로는 산업사회의 위험, 즉 재난, 재해의 용어를 둘러싼 투쟁이기도 하면서 새롭게 다가올 미래의 위험사회 양상은 혼란스럽고 모순적인 방식으로 기존의 산업사회 시대의 위험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러한 위험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을 단순화하기는 어렵지만 성찰적 근대화 재해석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4차산업혁명이라는 기술적 진보는 불가피하며 과거 산업혁명 시절에서부터 제기되어 온 위험에 대한 인식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고찰한다면 일반 시민들은 기술발전이 왜 일어나며 어떠한 경로를 거쳐 4차 산업혁명에 이를 것이며 로봇, AI, IoT 등이 가져다 줄 미래의 위험의 결과는 인식하지 못한 채로 기술적, 사회적 발전을 인식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의 속성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발전 시도는 브레이크 없이 지속될 것이고 이것을 억제하는 수단인 정치는 오히려 역할이 축소되어 경제논리의 하위종속적 역할로 한정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시큐리티를 전공하는 우리 위험전문가들은 적극적으로 정부가 위험사회를 제어하기 위해서 국가가 갖고 있는 위험관할권을 행사하면서 경제생산 논리에 개입을 해야 할 것을 주장해야 하며 그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위험은 그 내재성으로 인해 오판을 할 경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므로 정부는 위험의 정의와 관련하여 강제적으로 정치적 결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시큐리티 전문가들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둘째, 과거 산업사회에서 경제기술의 발달은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편리함과 윤택함을 가져다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과학적 혁신은 제도적으로 사회변화의 동력원으로서 민주적 자문, 감시, 저항에서 배제되고 결과의 책임에서 면제되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위험사회를 앞두고서는 이러한 책임면제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위험사회를 지적하고 대안제시를 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민주적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연구와 투자결정이 일단 먼저 행해지고 결과가 나온 이후에 결과에 따른 위험에 대해 토론이 이루어져 왔던 관행을 깨야 한다는 것이다. 4차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위험전문가들이 나서서 가능한 결과에 대해 토론하고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대안제시를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은 빈곤위험과 기술위험에 대한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동일선상에서 같이 진행되어지는 이 두 유형의 위험에 대한 인식은 정치적인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우파적 정부에서의 위험정책 결정과는 다르게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현 정부에서의 위험인식은 구별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위험인식이 해체되고 새로운 위험사회 인식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셋째, 비판을 통한 위험인식의 차별화이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발전에 대한 인식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위험사회의 불확실성 속에서, 특히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 줄 더욱 심화된 불확실성 속에서 기술발전의 한계, 운명론을 벗어나야 하는 불평등의 제거,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 등 보다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반성을 넘어서는 비판이 필수적이다. 비판은 확실히 진보를 의미한다. 과학이 과학을 비판하고, 의학이 의학을 비판하며 핵물리학이 핵물리학을 비판하는 사회야말로 미래를 알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다. 형태를 막론하고 자유로운

자기비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자칫 우리세계를 파괴할 수도 있는 잘못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러한 자기비판을 제도화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제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과학기술적 수단이 없이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정치의 변화를 통한 또 다른 위험사회의 극복

영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앤서니 기든스는 그의 저서 “제3의 길”에서 전세계의 주류 정치흐름인 신자유주의의 폐해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강한 의도를 가지고서 제3의 길을 주장하였다. 유럽의 복지국가 전통을 사라지게 만들면서 사회민주주의 노선을 무너뜨린 신자유주의는 소수의 주주를 위한 모델로서 그동안 나름대로 유럽에서 추구해온 다수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공동체를 만들 수 없다는 강한 신념에서 제3의 길을 주장한 것이다(앤서니 기든스, 1998).

이제 한국의 정부가 펼치고 있는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적 성향의 정책은 기든스가 주장하고 있는 제3의 길과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이 가져다주는 메시지는 지금까지 한국이 추구해 왔던 근대화 방식과 발전지향의 모델에 대한 반성 이상의 성찰을 추구하자는데 있다고 여겨진다. 익숙하지 않으며 도전적인 정책이라는 발상의 전환은 세계화와 근대화를 일방적으로 추구해온 결과 우리에게 다가온 위험사회를 성찰적으로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제 한국사회는 나름대로의 근대화 일변도에 대항(counter)하는 정치변화를 구성하고 발전시켜 위험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이론과 현실이 조화를 이루어 모두가 안전하고 책임있는 발전국가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IV. 결 론

한국사회는 위험과 불신이라는 측면에서 복합 위험사회다(앤서니 기든스 등, 1994). 농경사회의 전근대적, 산업사회의 근대적, 정보화사회의 후근대적 위험과 재난이 현재라는 시간대에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과학적 발전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문화적·사회적·정치적 환경에서의 국민적 정서와 불신이라는 측면에서도 위험사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복합 위험사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진 사회에서의

위험과는 구별되는 복합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찰적 근대화의 재해석을 통해 과학적 기술발전으로 수반되는 위험사회 극복은 물론이고 사회, 문화, 정치적으로 성숙되고 건실하면서 안전한 건전사회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

올리히 벡이 지적하고 있는 산업화(industrialization), 근대화(modernization) 시대의 위험개념은 성찰적 근대화 개념과 직접적으로 결합된다. 위험은 근대화 자체가 유발하고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근대화의 진전에 따라 도입된 위해와 불안을 다루는 체계적인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위해들에 대립되는 것으로서의 위험은 근대화가 그 자체로 내포하고 있는 위협적인 힘과 함께 전 세계적 글로벌화와 결합된 결과이다. 따라서 위험은 정치적으로 성찰적이다.

현대사회의 안전과 위험문제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물질적 번영이라는 근대적 합리화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적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요구하고 있다. 올리히 벡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면서 30여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현대 위험사회는 벡의 정의보다 더욱 발전된 형태로 다가온다. 따라서 30여년전에 벡이 지적한 산업사회의 위험을 그대로 두면서 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기술발전에 의한 불확실한 미래의 부를 추구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파멸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경제적 부를 희생하더라도 위험을 사전에 철저히 봉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 인류에게 남은 유일한 발전경로이다.

현대사회가 위험사회라는 현실 인식에 기초하여 벡이 주장하는 성찰적 근대회는 풍요사회를 지향하는 근대화의 과정이 위험사회로 귀착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되짚어 보면서 반전시키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것은 산업사회의 원리들 자체를 성찰하여 산업사회를 새롭게 해체하고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진보하는 산업사회의 재구성이 성찰적 근대화의 재해석 과정이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기존의 과학기술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혁명이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 - 인간의 통제 범위를 넘어설 수 있는 과학적 기술발전의 결과물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성찰성(reflexivity)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하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성찰성은 그동안 과학적 접근이 우리에게 심어준 체계적 가정 때문에 위험에 관한 전문가와 시민사회 집단들 사이의 사회적-정치적 상호작용을 배제시켜왔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위험에 대비하고 대응책을 강구하는 시큐리티 전문가들은 이러한 배제

에서 한걸음 다가가서 과학적 전문지식만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넘어서는 위험에 대한 성찰적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왔으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점에까지 다다랐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울리히 벡의 성찰적 근대화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한 21세기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성찰적 근대화가 해체의 대상으로 삼는 현대사회의 원리들 중에서 특히 과학-기술과 그 합리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험실에서 얻은 과학적 지식으로 배타적 집중을 하는 과학자들에게 반영되어 있는 위험체계의 이상적인 모형에는 일반 시민들에게 조차 의심스러운 물리적 과학적 가정들뿐만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위험모형도 들어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기술-과학을 부정하고서는 달리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한계를 동시에 실감하고 있다. 과학이 파생시킨 위험은 과학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는 우리에게 성찰적 과학화와 근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기술-과학은 문제의 원천이자 해결책이라는 이중성 때문이다. 결국 성찰적 근대화의 재해석이란 기술-과학의 가능성과 함께 그 한계도 인식함으로써 과학에 대한 사회의 간여와 제어력을 높이는 과정이다.

위험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위험의 비가시성은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위험의 실제성은 비가시적인 것들의 영역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결과의 비가시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의심되는 피해의 범위는 거의 무제한적이다. 위험사회는 일상의 인식과 사고에서 사변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보여 준다. 사람들은 실제성에 대한 대립되는 해석을 둘러싸고 늘 논쟁해 왔다. 철학과 과학이론이 발전하면서 실제성은 더욱더 이론적 해석의 대상이 되었다.

우리 위험 연구자들은 사고력과 상상력을 동원하여 문명의 위험에 대한 우리에게 지각되지 않는 것에 대한 실제성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고 치열한 토론을 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지각할 수 없는 것, 비가시적인 것들을 받아들인다면 모든 것에 대해 토론이 벌어질 수 있고 논의가 치열해지면서 상호 비판적으로 제시되는 의견대립은 결국 융합될 수 있다. 새로운 공동체와 대안 공동체가 대두되며 그 공동체의 세계관과 규범과 확실성은 보이지 않는 위험의 중심부를 둘러싸고 모인다.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이 기술-과학 전문가, 우리 위험전문가(안전전문가), 정부 담당자 등 어느 누구라도 성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면 다른 양상을 보였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위험사회에서 일반인들은 전문가로 변한다. 위험사회에

서 사회운동은 전문지식을 추구하는 동시에 다양한 분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벡의 위험사회에서는 위험과 안전을 사회발전의 중심에 놓는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급속하게 진행되어 온 발전에 대해 다시 한 번 성찰하게 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인간 통제의 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는 급격한 과학발전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사회에 대응하여 시큐리티를 재정의하고 시민들에게 안전을 제공해야 하는 우리 시큐리티 전공자들에게 이제 과학적 합리성만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인문사회적인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성찰성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올리히 벡과 앤서니 기든스 등이 주장한 성찰적 근대화이론은 너무 범위가 넓어 본 논문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시큐리티 측면으로 한정하였다. 사실 위험사회 극복을 위해서는 정치제도적, 문화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포함해야 하므로 본 연구의 범위는 위험사회 극복을 위한 완전한 대안 제시라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시큐리티 전문가들의 연구에는 성찰성이라는 연구 주제가 부족했기에 이러한 점에서 일찍이 산업사회의 위험사회 진입과 그 극복을 위한 성찰적 근대화를 주장한 올리히 벡의 지적을 검토하고 재해석하여 시큐리티 전문가로서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권혁빈 (2017). 미국의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극복 사례가 우리나라 메르스 사태에 주는 교훈: 조직간 협업과 정보공유를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52, 145-162.
- 박보현, 한승백 (2017). 근대스포츠의 합리성과 부상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해석: 올리히 백의 성찰적 근대성을 중심으로. **한국시큐리티융합경영학회지**, 6(4), 52-64.
- 박희제 (2014). 위험사회에서 세계시민주의로-올리히 백의 (기술)위험 거버넌스 전망과 한국의 사회학. **사회사상과 문화**, 30, 83-120.
- 양천수 (2015). 위험·재난 및 안전 개념에 대한 법이론적 고찰. **공법학연구**, 16(2), 187-216.
- 이홍균 (2009). 올리히 백의 "성찰적 근대화론" 비판: 성장의 사회 압력에 의한 행위의 관점에서. **담론** 201, 12(1), 133-159.
- Anthony Giddens, Ulrich Bech, Scott Lash (2006). **앤서니 기든스 등의 성찰적 근대화** (임현진·정일준 역). 서울: 한울 (원전은 1994에 출판).
- Antyony Giddens (1998).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 (한상진·박찬욱 역). 서울: 생각의 나무. (원전은 1998에 출판).
- Ulrich Bech (1997). **올리히 백의 위험사회** (홍성태 역). 서울: 새물결. (원전은 1986에 출판).

【Abstract】

Reinterpretation of Reflexive Modernization to Overcome Risk Society

Cho, Kwang-Rae

Korean society is a mixed risk society in terms of risk and distrust. This is because the risks and disasters of the farming and industrial societies, the modern and the information society, exist simultaneously in the present time. Ulrich Beck's point that the endless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o acquire economic wealth is simultaneously entering a risk society is providing us with many implications.

In this paper, we reviewed the Ulrich Beck's "reflexive modernization" theory in the late 20th century, pointing to the rise of a risk society as a result of the evolution of new modernization. This is because the "reflexive modernization" can be a direction in which we can reflect our wrong past from a human-centered perspective and design a desirable future.

In this sense, it is important to present ways to overcome the dangerous society through the reinterpretation of Ulrich Beck, who advocated the modernization of reflectively. In order to overcome the future risks tha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bring, we must provide direction for the government's security policies and public security consciousness.

Keywords: Risk Society, Reflexive Modernization, Security, Ulrich Beck, Risk Overcome